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9, 악의 문제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악의 문제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많은 증거와 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대 또는 비판인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학적 반대로서 고전적 악의 문제로 알려지게
된 것은 기원전 3세기나 4세기에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 또는 반대는 실제로 질문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즉 선하고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가 세상의 악의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 악의 표준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즉 악은 선함의 박탈이나 존재의 박탈입니다. 선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적어도 유신론적 전통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벳 의 친구입니다 .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정의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글썄요, 악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그는 제가 악을 사물이 있어야
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숙고해보니,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적 주제의 변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악을 선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그것이 사물이 있어야 할 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악 범주 또는 선의 결핍이나 선의 부족을 경험하는 두 가지 다른 주요 방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적 악이며, 허리케인, 기근, 암, 모든 종류의 전염병, 선천적 결함과 같은 자연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적 악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악이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존재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악이죠. 강간, 살인, 거짓말, 절도. 이것들은 모두 도덕적 악입니다. 그러니 자연적 악이든 도덕적 악이든, 우리는 사물이 있어야 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형태로 온다. 그래서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 있다. 지난 30-40년 동안의 주요 신학자는 윌리엄 로우라는 철학자이다.

그는 퍼듀 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쳤고, 수십 년 전에 널리 선집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무신론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는, 또는 무신론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악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논증에서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더 큰 선을 잃거나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는 강렬한 고통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연적인 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둘째,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는 더 큰 선을 잃거나 동등하게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는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고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가 악에 기반한 유신론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는 두 번째 전제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모두가 긍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가 더 큰 선을 잃거나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는 극심한 고통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모두가 첫 번째 전제를 긍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전지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더 큰 선을 잃거나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도 막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왜 그렇게 믿나요? 로우는 인간의 경험이 그러한 고통의 사례가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불필요한 악이라고 부르자. 불필요한 악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더 큰 선에 기여하지 않는 악이다. 그리고 그는 숲 속의 무고한 동물을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를 든다.

어린 사슴이 산불에 갇히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재 후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동물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는 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 그것은 불필요한 악처럼 보입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 사건에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온갖 끔찍한 운명을 겪는 불필요한 악의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는 신의 권능과 선함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로우가 발견한 주장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직접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첫 번째 전제를 거부하고, 새끼 사슴을 태우거나 무고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우의 답변은 유신론적 전통은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론자가 모든 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신론적 전통과 그의 판단의 흐름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그의 판단은

신비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근거로 악의 문제에 대한 유신론자의 반응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비를 인정한다고 해서 악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선을 식별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간접 공격이라고 그가 부르는 것으로, 두 번째 전제를 긍정하고 신이 없다는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전능하고, 모든 선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타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따르는 것은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유신론자,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취할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저는 왜 그 새끼 사슴이 불에 타 죽었는지, 왜 신이 그것을 허용했는지,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신은 실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 그저 불필요한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좋은 이유 없이 고통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더라도요. 하지만 그 첫 번째 전제는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로우의 답변은 유신론자는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고, 유신론자의 가장 좋은 길인 듯하지만, 신을 믿는 데는 독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러한 존재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만큼 결정적인 신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것으로 귀결될지도 모릅니다.

로우의 관점에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독립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가 신에 대한 믿음이 적절하게 기본적이라는 생각에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유신론자의 입장의 합리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로우는 세 가지 다른 옵션을 구분한다. 그 중 하나는 그가 비우호적 유신론, 비우호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유신론적 신의 존재를 믿는 데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견해를 특징지을 것입니다. 저는 데닛, 도킨스, 해리스, 히친스가 모두 비우호적인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미로 는, 아무도 신을 믿는 데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무신론자라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절한 무신론자라면, 유신론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로 여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사람이 거짓인 것을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나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아시다시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인 믿음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업용 제트기가 바다에 추락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 , 그들은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고, 아시다시피, 모두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 위에서 위아래로 떠다니고, 그의 생각은 그가 죽었다고 믿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향합니다 .

그리고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는 데 합리적으로 정당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이지만 합리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합리적 믿음의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본질, 또는 우리가 태양계의 바깥쪽을 들여다보고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과 같은 행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기술이 생기기 전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과거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저는 명왕성이 실격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우리 태양계에 5개 또는 6개 또는 7개의 행성만 있다고 믿는 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로우의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친절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며, “그래, 당신 유신론자들은 틀렸어. 신은 없지만, 여러 요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유신론자라면, 당신은 우호적인 유신론자일까요, 아니면 비우호적인 유신론자일까요? 당신은 누군가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신론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어로 당신을 비우호적인 유신론자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호적인 유신론자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로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유신론자들은 그가 신이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위대한 기독교 인식론자 윌리엄 올스턴은 로우의 주장에 응답하고, 로우의 주장은 첫 번째 전제가 의심스럽고, 사실 인간 이해의 한계 때문에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명제를 옹호했습니다. 올스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식적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스턴은 로우의 첫 번째 전제를 비판합니다. 기억하세요,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더 큰 선을 잃거나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의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스톤은 우리가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데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규모나 복잡성이 너무 커서 우리의 능력, 데이터 접근 등이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철저히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도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더 큰 선을 잃거나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고는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의 사례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제에 대한 사례, 즉 진정으로 불필요한 악이 있다는 개념은 기본적인 추론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식별한 것은 매우 간단한 추론이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한, P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P는 사례입니다.

이제, 그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유신론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모두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더 조심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경우, 비교적 무해해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스포츠 팀이나 선수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죠.

저는 톰 브래디가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페이튼 매닝이나 드류 브리스, 존 엘웨이가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글썄요, 제가 아는 한, 각자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또는 당신이 아는 한,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아 축구 역사가로서 증거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당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인식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무해합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 여부와 같이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에는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종종 미약한 추론인 이유는 그가 말했듯이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모든 살아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강렬한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에 대한 잠재적 설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강렬한 고통이든 부도덕이든, 누군가가 음, 아마도 이것이 신이 이것을 허락하는 이유일 거라고 이론화할 때, 그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은 신이 악을 허락한 이유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신이 악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려는 이론을 생각해 낼 때, 당신은 신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스톤은 주요 신정론 중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신정론 중 일부를 검토하여, 우리가 아는 한, 특정 신정론이 여기에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요.

그 중 하나는 처벌 신정론으로, 신이 죄에 대한 처벌로 특정 형태의 고통을 허용하며,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을 개혁하기 위해 허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숲 속의 작은 밤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작은 사슴이 회개해야 할 일은 없지만, 인간이 처한 온갖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어떤 사람이 신이 그 사람을 개혁하기를 원해서 고통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너무 부도덕해서 일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신의 징계를 받는지 말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적 결과라고 부르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행동 형태가 있는데, 신이 우주의 구조나 적어도 우리의 생물학에 짜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연쇄적이라면, 예를 들어 성적으로 방탕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다른 파트너와 성행위를 한다면, 결국 어떤 종류의 성병,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방탕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록 당신이 성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이 신의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는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의 시스템은 생물학적으로 이런 결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아시다시피, 도둑질이나 뭐 그런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 유신론적 관점에 따르면 아무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적어도 때때로는 도덕적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스톤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종종 주어진 사람의 죄악의 정도나 처벌을 통한 고통이 얼마나 개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격 있는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경우에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내가 신의 징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불운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의로운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스톤의 요점은 거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우 타협된 인식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일종의 겸손의 일종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 세상의 악의 현실 때문에 신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즉, 올스톤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전달에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훨씬 더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신정론은 소위 영혼 만들기 신정론으로, 신이 우리에게 좋은 성격적 특성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개인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상당히 성장하는 모든 종류의 사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사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에 더 진지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해졌으며,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진지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슬로건을 범퍼 스티커에서 볼 수 있죠. 고통 없이는 이득도 없지, 맞지요? 제 말은, 그것이 운동의 기본이잖아요, 맞지요? 당신은 체육관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운동합니다.

왜? 당신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인간 삶의 많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만드는 신정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려면, 글썄요, 이 특정한 무의미한 악의 경우,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글썄요, 그냥,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적 태도나 성격, 그들이 그것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에 대한 많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과소평가입니다.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 영혼이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성장을 이생을 넘어 다음 세상으로 확장해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대하기에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신정론, 또는 요즘 철학자들이 방어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의지 방어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악이 발생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에 필요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중요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 우리에게
 특정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악, 특히 도덕적 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특정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 외에는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사례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글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스톤이 말했듯이, 우리는 특정한 경우에 얼마나 많은 신의
 간섭이 인간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이 자유 의지 방어가 올바른 길에 있다면 그
 한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이 개인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악으로부터 돌려놓는 데 한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법 신정론이 있는데, 이는
 신이 삶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을 법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 악은 이것의 결과입니다
 .

여기서도 자연 재해와 유전적 돌연변이, 암, 선천적 결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은 누군가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할까요? 신이 왜 허리케인을 허락할까요?
 신이 왜 산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 일 등을 허락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다르게 만들지 않으실까요? 역제곱 법칙을 다르게

만들고 역제곱 법칙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체가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지도록 하는 매우 다른 종류의 자연 법칙을 만들지 않으실까요? 10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뇌진탕만 생기거나 뼈가 몇 개 부러지더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왜 우리 신체를 다르게 만들어서 3도 화상이 평생 동안 심한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변형되거나 사지를 잃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실까요? 신이 인간을 우로델라 파충류 처럼 만들어서 사지가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다리를 하나 잃었을 때, 의족을 사지로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대신, 3개월은 힘들 거고, 다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색할 거고, 몇 달 후면 다리를 되찾을 수 있고, 다른 다리와 어울리도록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얼마나 좋을까요?

사지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그게 문제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과 이런 종류의 것들과 관련된 법칙을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영구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수 없었을까요? 하지만 올스톤은 우리가 아는 한, 신이 법칙과 같은 규칙성 측면에서 세상을 매우 다르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는 많은 바람직한 특징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고립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다른 법칙을 가진 우주의 결과를 놓치기 쉽고, 아마도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을 특정 심각한 외상에서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인식적 상황의 한계입니다. 무언가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스톤의 관찰이 이러한 문제들과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적 겸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스톤은 아마도 더 강력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정론이 있어서 진정으로 불필요한 악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다른 신정론이 고안되었고, 논의되거나 꿈도 꾸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훌륭한 사상가, 철학자, 신학자들이 이를 생각해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논의한 이러한 신정론보다 악의 문제를 다루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신정론이 고안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좋은 신정론이 탐구되었다고 믿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기술의 역사에서 항상 모든 위대한 발명품이 발명되었고, 모든 위대한 기술적 업적이 달성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위대한 발명품이 생겨났고, 인간 기술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이 철학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모든 이론을 고갈시킨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고갈되었지만, 새로운 이론이 고안되고,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랍도록 혁신적인 오래된 이론의 새로운 변형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 신학, 그리고 개념적이거나 인문학적인 다른 분야들은 비록 당시 학자들 사이에 경험적인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자연 과학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균일한 합의가 없더라도 발전합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정론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러한 신정론 중 일부가 이미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의지 방어와 특히 영혼을 만드는 신학이 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이 유신론자에게 파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악의 문제입니다.